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0(土)	11(日)
	
구름 많음 7/13℃	구름 많음 6/14℃

News

- 범여 단일화 내주 고비 ②
- 도심 일본식 기숙 열렸다 ③
- 온라인 '수능응원 열기' ④

Jeollado

- 그 사람-이영일 前의원 ⑦



Entertainment

- 안방극장 새 드라마 온다 ⑧
- 공포·스릴러 꾸준한 인기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도토리 ⑬



유형직업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태도 바뀌는 대학
 전남과학대
 http://www.jstn.ac.kr

■ 상하이發 무안공항 첫 도착 국제선 탑승기

이륙 한시간 무안반도 한눈에

승객들 무안공항 첨단시설에 감탄사

“서남권 관문, 세계로 뻗는 역할 바라”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첫 국제선 여객기가 될 중국 동방항공 ‘MU 5057’편 에어버스 320여객기는 9일 오전 상하이 푸둥공항 계류장에서 느긋하게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광주공항으로 착륙하던 이 노선이 9일부터 무안공항으로 도착지가 바뀌었지만 푸둥공항의 39번 게이트에는 아직도 도착지를 알리는 전광판이 ‘KWANGJU’로 표시돼 있었다.

무안 국제공항의 첫 착륙 국제선 비행기가 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항공사측은 별다른 이벤트를 마련하지 않았고 승객도 모두 96명으로 잔여좌석이 많았다.

현지시각으로 오전 8시55분 MU 5057편은 푸둥공항을 힘차게 이륙했다. 이륙한지 1시간만에 바다에 둘러싸인 무안반도가 한 눈에 들어왔다. 군사 시설이 드문 드문 내려다 보이던 광주공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기내방송에서는 도착 예정시간과 ‘섭씨 14도, 구름 조금’이라는 무안 국제공항의 기상

상태가 흘러나왔다. 잠시후 비행기는 미끄러지듯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도착시각은 오전 11시 15분. 상하이에서 무안까지는 광주~상하이 노선과

비슷한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기대감에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서 일어난 승객들이 비행기 통로를 빠져나와 무안공항 2층에 도착하자 서삼석 무안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전남도 공무원과 환영객들이 첫 입항기록을 세운 기장, 승무원, 승객 등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첫 입국자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조성배(28)씨로 기록됐다.

검역과 입국심사, 세관검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공항 관계자들은 많지 않은 승객인데도 미숙한 일처리를 보였다. 입국수속을 마친 승객들은 청사를 둘러보며 국제공항의 위용에 걸맞는 시설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공항 관계자들의 딱딱한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국 상하이에서 동방항공편으로 9일 오전 무안 국제공항에 첫 입국한 승객들이 1층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위경림기자 jwli@kwangju.co.kr

목포공항 38년만에 ‘역사속으로’

무안공항 개항 따라 해군 비행장 역할만 담당

무안국제공항 개항으로 38년 역사를 간직한 목포공항 관계팀의 불이 꺼졌다. 1969년 개항한 목포공항은 9일 목포~김포 간 항공편이 무안~김포로 변경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목포공항은 서울에서 제주를 잇는 민간항공 노선의 경유지로 개항한 뒤 20년간 장기 휴항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1992년 7월 재개항한 목포공항은 서울~목포 노선에 이

어 1994년에는 목포~부산 노선까지 확대되는 등 한 때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 1천500m에 100인승 항공기 2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등 열악한 시설 때문에 노선이 차례로 감축됐다. 또 안개와 강풍 등에 따른 잦은

결항에 안전문제가 겹쳐 결항률 전국 1위의 오명에도 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여러 차례 폐쇄 운명을 맞기도 했다.

1993년 7월 26일에는 해남군 화원면 산자락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하는 최악의 사고도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2000년부터 대부분의 노선이 차례로 끊겼다. 민항 기능이 사라진 목포 공항은 해군 비행장으로 사용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김경준씨 내주 귀국 대선정국 요동치나

BBK 수사결과 따라 지지율 급변 가능성

BBK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오는 17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 정국이 또 한 차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막판 대선 판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김경준씨 입국에 따른 특별상황실을 설치, 현안 발생시 시시각각 대응하는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검찰과 범여권을 향해 “정치공작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한층 높였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경준씨 귀국 일정과 관련 “17일 아침 귀국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들었다”며 “범여권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김경준이라는 국제사기꾼을 끌어들이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BBK 수사에 언급, “그러지 않겠지만 만의 하나 검찰이 정치공작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제2의 김대업식 정치공작을 막겠다. 국민과 함께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귀국은 후보간 지지율 경쟁의 갈림길에 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귀국 이후 새로운 물결이나 증언을 제시할 경우 그동안 BBK와의 연루 의혹을 일축해 온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검찰조사에서 신빙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후보가 ‘면죄부’를 받는 형태로 지지율 선두를 유지할 수도 있다.

김씨는 이미 언론인터뷰를 통해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 증거를 검체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온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 李 ‘협조 요청’ 사실상 거부

직접 전화 “도와달라”... “그럴 필요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8일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의 전격적인 당직 사퇴 직후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면서 조속한 만남을 제의했으나 박 전 대표는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와 이재오 최고위원의 사퇴로 한나라당 내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두 사람이 통화에서 뚜렷한 ‘화해메시지’를 나누지 못함에 따라 당내 갈등 기류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측 임태희 후보 비서실장은 9일 “이 후보가 어제 오후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교체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되

도록이면 빨리 만남을 갖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다음주 경북 구미에서 열린 ‘국민성공 대장정 대구·경북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박 전 대표에게 제안했으나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 후보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데 대해 박 전 대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 대회 참석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만 갈 수 있겠느냐. 행사를 잘 치르십시오’라고 박 전 대표가 (이 후보에게) 말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innisfree